선민들이 갖는 천국거부감

(열왕기하 2:15~25)

19.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23. 엘리사가 거기서 벧엘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4.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사십이 명을 찢었더라
25.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들이 갖는 천국 거부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들이 갖는 천국 거부감'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도 선민들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천국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과 같은 무력감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자신이 천국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박완서 씨가 2011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황해도에서 내려오셔서 주부로 사시다가 40살에 "나목"이라는 소설을 쓰신 이후로 우리나라 문학사에 획을 긋는 여성문인으로서 활동하셨고, 서울대학에서 최초로 명예문학 박사학위도 받으신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 분이 96~98년까지 복음을 묵상한 내용을 천주교 서울주보 말씀의 이삭에 게재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가, 2016년 7월에 다시 한 번 "빈방"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천주교 교인으로서 성서에 대한 묵상의 내용을 수필 식 산문의 형태로 적어 모은 것입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소제목의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꿈꾸는 부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혼자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승에 천당이라는 데가 있다면 제가 이승에서 사랑한 꽃들보다 더 예쁜 꽃, 더 아름다운 나무, 더 빛나는 햇빛, 더 상쾌한 물결, 더 찬란한 노을, 더 명랑한 새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승에 떼어놓고 가는 피붙이나 친구들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다면 그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함께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나 차마 헤어지기 싫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혼자 가야 하는 절대 고독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합니다.”라고 복음서를 읽고 떠오른 천당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주님! 저에게 천당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부활의 희망만은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천당은 허락하지 않아도 좋고 부활의 희망만은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이 분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제게 합당한 부활은 저의 전체 중 가장 미소한 일부인 저의 좋은 점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잊지 않고 저를 향해 마음의 문을 늘 열고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향해 굳게 문 닫고 있다 해도 가끔 그들 사이로 돌아와 바람처럼 공기처럼 스며들어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주 저를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슬플 때 제가 생각난다면 기쁨이 되고, 어려울 때 제가 생각난다면 힘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육신을 떠난 영혼에 그러한 자유를 주신다면 임종의 순간에도 결코 두렵지 않으리이다.”라고 합니다.

문학인으로서의 솔직성과 함께 종교적인 소재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점이 느껴지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어령 씨가 회심 전에 쓴 글을 볼 때에도 느꼈던 것이지만 기독교 진리와 연관된 내용의 글들에서 작가들이나 문학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대할 때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신부님들이 설교 대신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연관된 기독교 진리의 내용 앞에서 작가들이 너무 성급하게 입을 여는 것만 같습니다. 좀 겸손하게 초짜 신부님들의 강론을 듣기만 했더라도 천당이나 부활에 대해 이런 글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천주교 서울주보에 실렸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부님들조차도 이런 유의 글에 감동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천당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좋으니…’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애교를 부린 것일지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무서운 것은 혼자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 이승에 떼어놓고 가는 피붙이나 친구들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다면 그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라는 말도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에 집사람이 3개월 뒤에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집사람은 독일에 못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제가 괴팅겐 시청으로부터 비자를 받아서 집사람에게 보내고 한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에 가서 입국절차를 밟아서 왔습니다. 집사람에게 독일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천애고아와 같은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괴팅겐 도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향할 때 그 마음에는 고독이 아닌 만남에 대한 기대와 앞선 환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앞서 본 글에서 하나님을 옳고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옳으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피붙이나 아는 사람들과 헤어진다고 해서 고독을 느끼는 것이 합당합니까?
자신의 생의 성과와 업적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간혹이라도 자신의 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짐을 부활로 여기고 있는데 글쎄올시다. 80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람됩니다만, 이 글은 신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애교 같습니다.
박완서 씨가 가진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꺼림칙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박완서 씨의 글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후5: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하는데 지금도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을 마치 귀양 가는 것처럼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박완서 씨가 쓴 글은 솔직성이 돋보입니다. 또한 솔직할 뿐만 아니라 서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정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박완서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데 바로 천국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선지자 생도들의 의심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불말과 불수레가 스승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생도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채 건너편에서 보았습니다. 요단강은 한강처럼 넓지 않고 좁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오는 것을 보자 생도들이 의심하여, 엘리야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다 육체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엘리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권적으로 요구하자 엘리사도 별 수 없이 찾아보기를 허락합니다. 엘리사가 믿지 않은 것은 아니고 같은 의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삼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의 의심은 단순히 엘리야의 몸이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중간에 시체로 떨어졌느냐의 물리적 차원에 머무는 의심이 아니라 바로 천국 거부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의심이

왜 생겼는가를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천국에 대한 거부감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완서 씨처럼 그것을 솔직하게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나 솔직하게 표현하는 솔직성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실들을 만납니다. 그 사실들 중에서 마음을 주는 것만을 현실로 채택해서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현실감 속에는 사랑과 증오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알래스카로 발령을 받아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이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는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샀다는 지리학적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래스카의 존재가 사실일 뿐 현실이 아니었는데, 아들 내외와 손주가 그곳에 가자 부모의 마음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알래스카에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걱정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음을 묶었을 때에 엘리야가 올라간 하늘이 엘리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도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다음쯤으로 바알 숭배가 편만하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엘리야를 존경하던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승천한 하늘은 사실적 차원을 뚫고 나와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들을 알래스카로 보낸 부모에게 알래스카가 사실에서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엘리야의 승천이 생도들에게는 하늘을 현실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며 밀고 들어올 때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박완서 씨가 이야기한대로입니다. 마음을 주고 있던 대상들이 이 땅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늘은 땅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한 하늘에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며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하늘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박완서 씨처럼 피붙이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며 내가 이룬 업적도 있으므로 이것들을 다 끊고 하늘에 마음을 둠이 주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몸을 땅에서 찾음으로서 혹시라도 땅에 대한 마음을 끊지 않을 가능성을 찾고 바라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기를 바랐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것들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서 차라리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큰 소망과 기쁨으로 여겼지만, 엘리야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엘리사가 여리고 성의 쓴 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물고 있는데 그곳은 물이 쓴 곳이어서 토산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산'은 과일이나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아기가 유산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뿌림으로서 이 지역의 물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문제가 큽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 숭배가 편만한 상태였습니다. 바알 숭배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기 위한 그 당시의 최고의 방법론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되고 부흥하는 성공의 길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여리고 땅의 물을 엘리사가 고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 여호와의 선지자로 위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승천의 자리에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는 엘리사에게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풍요와 다산은 누구나 추구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늘이 우선되므로 그것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이 장악되고 이끌려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걱정을 안겨주기도 하고 기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문제들은 마음이 하늘을 현실 삼음으로서 이 땅의 문제들이 부차적인 차원으로 강등 될 때에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문제를 대단한 존재로 승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부차적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그만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마음을 하늘로 주어서 하늘에 머무르면 엡2: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 문제는 부차적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되어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현실로 붙잡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주님께 내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 내 마음을 묶기만 하면 부활과 승천은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다보면 이 세상의 문제가 부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문제가 아닌 상태로 느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작은 아이들을 암곰이 물어 죽인 사건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 사건은 너무나 잔혹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놀린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들이 침을 뱉고 뺨을 치며 모욕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셨는데, 엘리사는 철없는 아이들이 놀렸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해서 암곰 둘이 나와서 사십이 명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엘리사의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암곰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의 원어를 보면 12~15살 정도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 나이 때에 이미 성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생애를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엘리사와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하늘로 올라가라'며 조롱한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에게 그저 대머리만 놀렸더라면 그저 화를 내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올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 생을 살아야 될 청소년들이 하늘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이것은 이 땅과 하늘 사이에서 철두철미하게 이 땅을 현실로 선택하고 하늘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하늘을 현실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이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곧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현실이 아닌 사실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을 전폭적으로 주고 있는데 박완서 씨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내 피붙이도 없고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나 남편도 없으며, 내가 이룬 세상에서의 업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면서 내가 이룬 업적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되는 것을 부활로 착각합니다. 천당을 못가더라도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는 것을 바라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을 지금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부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믿음은 하늘을 현실로 느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에 마음을 묶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에 마음을 묶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마음을 올려 보낸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올려 보냈던 제자들에게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늘을 현실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암곰에게 죽은 아이들과 같은 일이 생기는데 현실로 채택되어야 될 하늘을 배반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돈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우선시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빛나고 자기를 치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현실이기에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기억하므로 세상의 죽음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박완서 씨도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죽고, 남편과 자녀와 피붙이들에 대해서 죽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신 주님 승천에 대한 조롱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